

도서박람회에 책 여행 왔어요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현장 스케치

‘길림에서 만나 책의 향기를 함께 누리자’를 주제로 한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5월 17일부터 19일 까지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현장을 찾아 즐거운 책 여행을 체험했다.

6살 딸을 데리고 온 양녀사는 “인터넷을 통해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았다. 나와 딸 모두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다종다양한 책도 볼 수 있고 질판 도서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이번 도서교역박람회는 12 개의 특색 전시구역으로 나뉘고 600 여개 출판사가 참가해 각양각색의 도서를 전시하였다. 어른들이 즐기는 도서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읽고 구매할 수 있는 도서도 많이 전시되었다. 그중 연변교육출판사의 《양이와 구름왕국》, 《못가에서 읽은 일》 등 어린이도서가 인기가 많았다.

동시에 박람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행사를 마련했다. 북방부녀아동출판사는 ‘중국의 좋은 책’을 주제로 동영상 공유 행사를 마련했는데 어린이들은 무대에 올라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관중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3 등상을 받은 길림성제 2 실험 (고신구) 학교에서 온 9 살 장지함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데 이 같은 대형 도서박람회에서 좋아하는 책을 많이 고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외의 도서전시구역의 립체도서도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책임자는 “마광 (魔光) 립체도서는 《천공을 교란하다》, 《무기》, 《위대한 발명》, 《공룡공원》 등 4 개 시리즈로 구성되어있으며 360 도 립체도면 설계와 소리 및 빛을 결합한 형식으로 어린이들에게 생생하게 지식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책랜덤박스’ (图书盲盒)도 큰 인기를 끌었다. 책임자는 “우리의 랜덤박스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는데 주로 3 세—6 세와 6 세—12 세 두 연령층의 책으로 나뉜다. 9.9 원과 19.9 원 두가지 가격이 있는데 원가보

다 10~20%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소개했다.

재미있는 활동과 값진 도서 외에도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보고 살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제품들도 전시되었다. 예쁜 뜨개인형,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흙인형, 먹을 수 있는 사탕인형... 어린이들은 수공예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였다.

/ 손맹빈기자



길림성문화산업투자유치대회 개최

45 개 프로젝트 체결

57 억 9,000 만원 유치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부대 활동의 하나로 5월 17일, 길림성문화산업투자유치대회가 장춘에서 개막되었다. 활동은 길림성당위 선전부, 길림성상무청, 길림성문화관광청에서 주최했다. 개막식 중점 프로젝트 체결식 일환에서 45 개 프로젝트가 체결되었는데 프로젝트 총 투자는 64 억 9,000 만원이고 성과자금 57 억 9,000 만원을 끌어들이었다.

투자유치대회 현장에서 ‘길림기

금’ (吉文基金) 가동식을 거행, 장춘시, 길림시, 통화시가 당지의 문화자원에 대해 소개하고 7 개 문화기업 (단위)의 책임자들이 송화석작은 마을, 장백산문화산업단지, 장영 (长影) 세기성 업그레이드 등 7 개 대상에 대해 각각 홍보설명회를 진행했다.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길림은 찬란하고도 풍부한 다민족 역사문화유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3 지 3 요람’ (三地三摇篮)으로 대표되는 흥색문화와 제 1 자동차 창업을 대표로 하는 공업문화에 있다.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있는

가 하면 문화적 저력이 풍부한 인문경관도 있다. 전 성에는 현재 5A 급 풍경구가 8 개 있는데 그 수량이 동북 3 성 가운데서 가장 많다. 국가급 문화산업 단지, 기지, 전역관광시범구, 문화관광소비집결구 등이 전 성에 분포되어있다. 전 성 문화산업 발전은 열의와 원동력, 잠재력이 있다.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는 ‘1 주 6 쌍’ 고품질 발전전략을 착실하게 관철, 실시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 문화산업 중점단지, 선두골간 문화기업 등에 의지하여 문화산업의 투자유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각지, 각 단위를 지도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대회 개최 목적은 전시회 플랫폼을 통해 우리 성의 문화산업 중점 기업, 우량제품, 지역자원, 특색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우리 성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꾸준히 환경을 최적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광범한 문화기업에 경영 토대와 전시 무대를 제공하고 전 성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 길림일보

장춘출판미디어그룹, 지역특색 도서 인기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서 장춘출판미디어그룹은 전국도시출판사련체와 함께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 2 호관에 680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구를 차지하고 지역적 특색이 다분한 17 개 전국 도시출판사의 5,000 종에 가까운 각종 정품 도서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박람회에서 장춘출판미디어그룹의 《장춘기억》총서, 남경출판사의 《중국남경운금 (中国南京云锦)》, 서안출판사의 《비단의 길 이야기》, 무한출판사의 《형초문고 (荆楚文库)》 등 도서들은 그 도시의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료해하고 경제사회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합금량이 높은 정품 도서로 알려지고 있다. 장춘출판미디어그룹에서는 또 대중적인 빙설운동 보급을 위하여 《중소학생 빙설운동》 도서도 출간하여 광범한 체육교원과 중소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빙설 운동에 관한 학생들의 흥취를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수받도록 하였다.

장춘출판미디어그룹의 리춘방 총편집은 “이번 박람회에 그룹에서는 도서 출판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조직하여 특점을 구현하고 하이라이트를 돋출히 하였으며 열점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그룹에서는 박람회 기간에 작가를 초청하여 청소년들을 상대로 열독강좌를 조직하고 동시에 국내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의림 (意林)》 잡지를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기

념으로 증정하는 등 이벤트를 마련했다.

장춘출판미디어그룹에서는 또 당년에 어린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사랑을 받았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灌篮高手)》와 《명탐정 코난》 관련 이벤트도 마련하여 이번 도서교역박람회의 왕층, 출책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7 개 도시출판사의 표지를 예술적으로 설계해 부동한 특색을 갖춘 기념도장



을 만들어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구매한 도서 등에 기념으로 출석 도장을 찍어가도록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장춘출판미디어그룹은 1988 년에 설립되었으며 36 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현재 전통적인 도서 출판외에도 디지털 출판, 미술 설계와 제작, 음향제품 출판 그리고 출판물 도매와 소매, 중소학생 교과서 발행, 출판물 온라인 판매, 온라인 문화 경영, 온라인 정보 봉사 등 출판과 관련된 주요 산업사슬을 아우르고 있는 종합성 출판미디어그룹으로 성장했다.

최근년간 그룹은 선후로 전국 100 개 우수도서출판단위, 전국 신문출판방송영화드라마계통 선진집체,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 판권기업, 길림성 10 강 문화기업, 중국도서 해외소장 100 강 출판기업 등 하다한 영예를 따내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도시출판미디어문화기업으로서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했다.

/ 리철수기자

‘공자의 고향’ 대형 출판기업 도서교역박람회 참가



“배우고 터득하니 기쁘고 벗이 먼 곳에서 오니 반갑기 그지없도다.” 공자의 《론어》에 나오는 명언이다. 이번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 공자의 고향인 산둥성에서도 출판업체를 조직해 박람회에 나왔는데 참가 업체는 바로 산둥성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국유 문화기업이며 상해증권교역시장 상장기업인 산둥출판그룹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산둥출판그룹 관계자는 “주최측의 요청으로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서향제로 홍도유풍 (书香齐鲁 弘道儒风)’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산하의 여러 출판 기업에서 출판한 정품 도서들을 갖고 나왔다.”고 소개했다. 산둥출판그룹은 산하의 산둥인민출판사, 산둥문예출판사, 산둥교육출판사, 산둥과학기술출판사 등 10 개 대형 출판업체를 조직하여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전시 도서들로는 지역특색이 농후한 《유전 (儒典)》 정선본을 포함해 《중국문화 해외전파간사》, 《중국북두》, 《과학기술혁명과 국가 현대화 연구》, 《해외소장 황하어도집 (海外藏黄河舆图集)》, 《국색 (国色)》, 《국

서 (国书)》, 《중국글 중국사람》 등 전통문화의 내포가 깊고 과학기술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이야기 등을 다룬 정품들로 구성되었다.

《유전》은 그동안 전해내려온 유학에 관한 문헌에 대해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출판한 최신 성과로서 1,816 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학의 형성과 발전의 주요한 맥락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서적이다. 《중국북두》는 2021 년 중국 좋은 도서 입선 작품이며 제 8 회 로신문학상 수상 작품으로서 처음으로 중화의 아들딸들이 26 년 동안의 완강한 분투와 하나 또 하나의 난관을 돌파하면서 북두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해온 과정을 다룬 보고문헌이다.

2017 년 11 월, 산둥출판그룹은 산둥성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국유 문화기업으로 상해증권교역시장에 상장했으며 선후로 193 가지 종목의 국가급 출판 영예를 따내고 련속 16 회에 걸쳐 중앙선전부의 ‘5 개 1 프로젝트 (五个一工程)’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12 차에 걸쳐 전국 30 강 문화기업에 선정되었다.

/ 리철수기자

《아름다운 장백산》출판권 수출 계약식 장춘서



5월 18일, 제 1 회 동북도서박람회에서 길림과학기술출판사의 출판발행으로 된 도서 《아름다운 장백산 (大美长白山)》의 로어판, 이팔리아판, 영어판 출판권 수출 계약식이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있었다.

《아름다운 장백산》은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조직해 편찬한 도서이다. 책은 수려한 장백산 천지, 웅장한 고산협곡, 호방하게 쏟아져내리는 폭포수, 광활한 삼림 식물피복, 조화롭게 공생하는 동식물 등의 아름다움들을 생동하게 그려내면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장백산 생태계통의 넘쳐흐르는 생기를 펼쳐보였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리념을 전달하고 있다.

“을 3월 28일, 장백산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성에 세계지질공원이 없던 공백을 메웠다. 장백산의 이야기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우리는 길림과학기술출판사와 합작해 《아름다운 장백산》을 펴내게 되었다. 책은 장백산 자연풍경에 대해 정제로운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장백산의 독특한 지질 구조에 대해 깊이 해독했다.” 중공장백산사업위원회 부서기 리지펑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로씨야, 이팔리아, 미국에 이 책의 출판권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독자들이 장백산의 아름다움과 신기함을 더욱 깊이 료해하고 장백산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백산의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이 세계에

로 더 잘 나아가도록 다그쳐 추동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장백산은 자원이 풍부한 자연보물고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 풍부한 문화보물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방의 과학기술출판사로서 길림의 우량한 생태 형상을 전시하고 길림 특색 문화를 진흥시킬 사명과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 길림과학기술출판사 사장 원하는 이렇게 말하며 “《아름다운 장백산》은 우리 출판사와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 3년간의 시간을 들여 내놓은 한 부의 중요한 작품이다. 이번 출판권 다국어중 수출로 더욱 많은 독자들이 길림 장백산의 독특한 매력을 료해하고 혼상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많은 국제 출판계 동업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믿어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 길림일보

